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FOR SUMMER

vol.133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하룻밤

타프 위 밤하늘의 별이 가슴에 내려와 종종 그대로 박힙니다. 랜턴은 불빛이라고는 없는 사위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텐트 속, 부지런한 산새의 지저귀음이 아침을 깨웁니다.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계곡물 소리... 자연의 소리가 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여름, 너그러운 자연의 품에 안겨 잠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글 편집부

CONTENTS

2 **찰나의 계절**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하룻밤

SPECIAL THEME, 취향

6 SPECIAL THEME 01 취향, 그것은
8 SPECIAL THEME 02 우리는 무엇을 왜, 좋아하는가
12 SPECIAL THEME 03 우리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16 SPECIAL THEME 04 취향 보러 가자

사람과 건강

20 건강 읽기 여름철 요로결석 주의보
22 인하포커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28 영화와 인생 영화 〈지중해〉와 〈위트니스〉
32 계절밥상 수박화채와 초계국수
34 콧노래 여행 강원도 삼척 여행
40 공간 풍경 인하대병원 피아노 라운지

인하, 사람

42 인하가 만난 사람 인하대병원 시설팀
46 인하라운지 '내 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
48 톡톡 약물상담 성장호르몬 주사
49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0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2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19년 여름호(통권 제133호) 발행일 2019년 6월 2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 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
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한 포털사이트는 취향을 일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레프 톨스토이는 아주 오래전 "취향이란 인간 그 자체"라 정의했다. 취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 향한다. 취향은 곧 나를 알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자 타인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이다. 사소하고 평범한 취향이 켜켜이 모여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취향, 그것은

글 글짓는정(構)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돌이켜보면 어릴 적부터 물건에 애착이 강하고 의미부여를 잘하는 아이였다. 내 품에 들어온 것이라면 아주 작은 물건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다. 가진 모든 것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나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 갔다.

나이답지 않은 취향도 가졌었다. 생산연도를 추측하기조차 힘든 어른들의 오래된 물건, 손때 묻은 것에 유독 마음이 가고, 나이든 사람이나 사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또래가 봄비는 소란스러운 곳보다 조용한 공간 찾기를 즐기고, 삶의 본질 문제를 고민하며 답을 찾아 헤맸다.

그렇다고 유행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유행 아이템은 서둘러 섭렵하고자 노력하고, 그것들은 대부분 내 손을 거쳐 갔다. 다른 아이들처럼 TV 만화영화를 꼭 챙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화방을 들락거렸으며, 그 시절 유행하는 영화는 놓치지 않았다. 컬러풀한 패션이 유행할 땐 재빨리 구매 입고, 인기 있는 음악은 모조리 들었다. 등하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최신가요 100곡으로 귀를 채우며 황홀했다. 이렇게 새로움을 탐닉하는 인간의 본성대로 유행 아이템에도 자주 마음을 빼앗겼지만 '이미 가진 것'이라고 해서 마음을 거두는 법은 없었다. 한 마디로 욕심 많은 아이였다.

'취향'이 주목받는 시대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갖고 싶고, 만들어가려고 한다. SNS만 봐도 알 수 있다. 자기를 표현하고 주목받고 싶은 이들이 주변에 널렸다. 내가 선택한 무엇,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공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내가 선택한 것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취향은 고집과는 다르다. 취향은 곧 '좋아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도구가 된다. 그녀가 목에 건 목걸이, 그가 선택한 빅타이에는 결국 그 사람이 담겨 있다. 한 사람이 가진 물건, 생활패턴, 생활공간 등은 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어른이 된 내게 취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호한 어조로 대답할 수 있다. 여전히 오래된 것에 마음을 훌쩍 빼앗기

고, 오래 사용하는 소품과 공간을 장식하는 소품은 대부분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며, 산책과 수다를 즐기고, 자주 여행을 하고, 일과 중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고자 한다는 것.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물건 집착증으로 확고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쇼핑 시간을 꽤 단축했다. 어른이 되었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취향은 견고해진 것이다.

요즘 자주 '취향'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이 '과거 모든 날'의 나라는 전제 아래 한 살이라도 어릴 적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근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일종의 후회 말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취향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요리를 세계여행을 많이 한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반열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당혹감 같은 것.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 차곡차곡 쌓은 습관과 경험에서 탄생한 취향이지만, 취향을 들여다보고 만들려는 노력은 곧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시 나는, '100년을 사는 취향'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한다. 찰나의 유행이 난무하고, 반짝거리는 취향이 주목받는 시대지만 유행만 좇아가는 유행과 함께 취향도 사라지고 말 일이다. 획일화된 취향만을 향유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재료가 된다. 그리하여 최후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아메리칸퀵트>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행복과 고통이 공평하게 깃든 인생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취향도 포함된다. 어쩌면 삶의 완성은 곧 취향의 완성 아닐는지. 취향이라는 이름이 가진 분위기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완성되고 싶다.

우리는 무엇을 왜, 좋아하는가

우리의 하루는 취향의 하루다. 어릴 적 소소한 모든 순간과 하루의 평범한 선택은 차곡차곡 모여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우리가 지닌 기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좀 더 폭넓고 심오한 취향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무엇을 왜, 좋아할까'라는 궁금증이 일렁인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교수가 취향과 취미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글 맹세리(인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어릴 적 소소한 순간이 만든 오늘의 나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가면 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리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루한 리듬의 노래가 할아버지에게는 왜 즐겁게 들릴까요? 어린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듣지 않는 1990년대 노래가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를 살펴보면, 10대 때 들은 음악은 성인이 되어 들은 어떤 노래보다 강렬하게 뇌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음악적 향수'입니다. 이런 추억은 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비단 음악뿐이 아닐 겁니다. 인격 형성이 활발하게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는 '나 자신으로서 사회에 데뷔하는' 첫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친구를 사귀며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은 한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안도감 혹은 기쁨의 도구가 되고, 그때의 감정과 함께 뇌에 강렬하게 저장되어 문화 취향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거나, 좋아하는 재킷의 색을 고르는 데도 영향을 주지요. 물론 성인이 되어 생긴 취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의 취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반가움을 느끼고 기꺼이 가까워질 기회를 만듭니다. 마치 10대에 친구들과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며 경험했던 강렬한 기억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물건이나, 생활 패턴, 좋아하는 것들 안에는 어쩌면 더 어린 시절의 행복하던 순간, 반짝이던 기억이 함께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모여 지금의 한 사람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삶에 취미 활동이 필요한 이유

취미는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이란 뭘까요? 즐거움을 느끼는 뇌의 역할은 '쾌락 중추'와 관련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며 특별한 만족감을 얻었다면 그 즐거운 기억은 뇌의 쾌락 중추를 거쳐 보상 중추에 저장됩니다. 그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 직접 보상 중추를 자극하여 즐거움을 느끼도록 작용합니다. 신기하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은 개인에 따라,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의미일 겁니다. 심지어 봉사 활동 같은 활동을 할 때 뇌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서 작용하는 이 '보상회로'가 동일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타적 활동조차 개인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만족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 탄력성과의 관계가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적이거나 이차적으로 면역 기능과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 조금 더 즐겁게 사는 방법

앞에서 우리는 즐거운 것 혹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는 겁니다. 밝은 햇빛은 기분과 관련된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숙면에 필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산책을 하며 근육을 움직이면 BDNF(뇌 유래 신경성장인자) 분비가 활성화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뇌 기능을 촉진해 기억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몸을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이 자연에 나가거나, 자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산책을 했고, 니체는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일과 중 산책을 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원하는 이 바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잠시 머리를 식히며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즐거움을 찾을 기회일지 모르니까요.



맹세리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인, 소아 정신건강을 진료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취향에 영향을 주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맹세리 교수는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취향이 생기면 취미를 갖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취미는 곧 그 사람이 된다. 즉, 취향은 사람을 반영하는 거울이요, 사람의 인생을 말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울곧은 취미를 즐기는 인하대병원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훌쩍하는 취향 라이프.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비뇨의학과 송호숙 외래 간호사

고민에서 놓여나는 황홀한 순간_ 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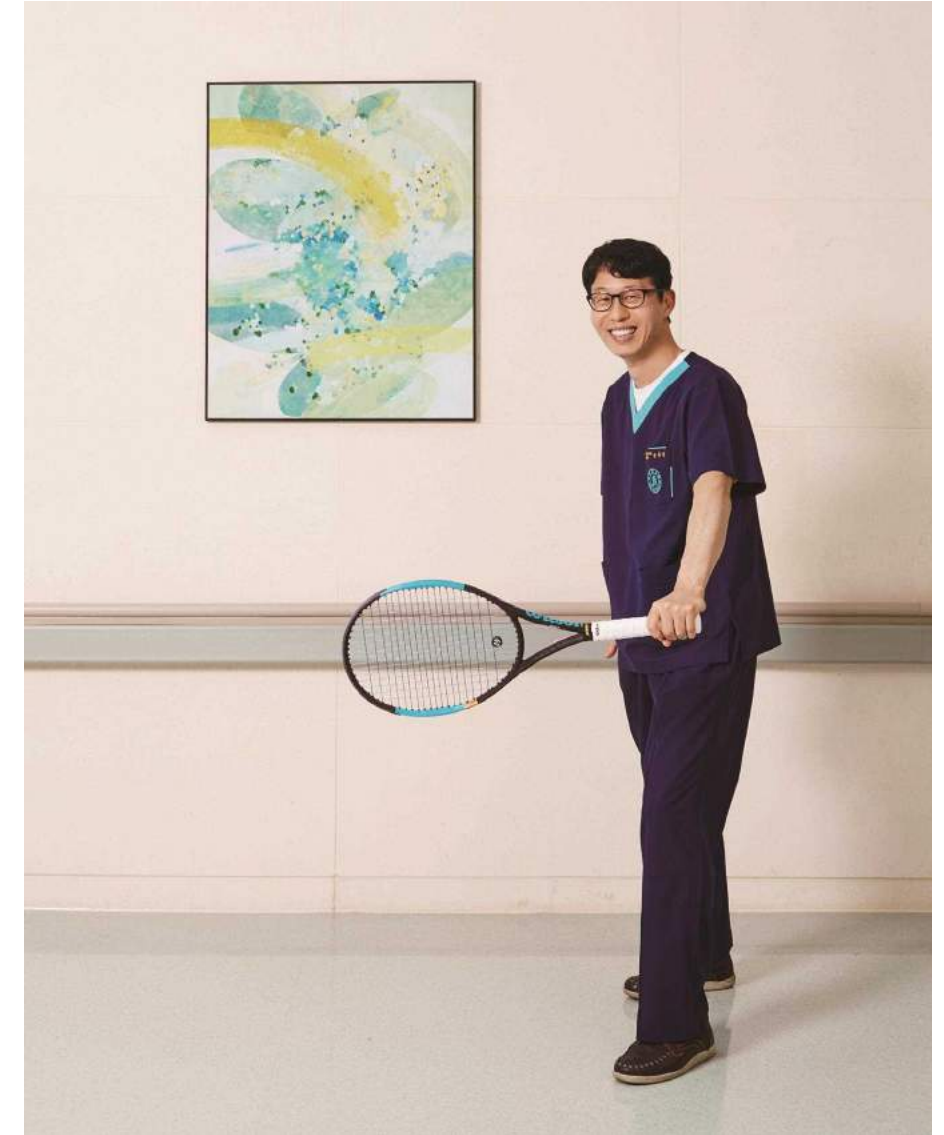
첼로는 2008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장 가깝게 곁에 있는 악기이자 벗이에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쌍둥이 언니를 보면서예요. 언니도 간호사예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 듣기를 즐겼어요. 늘 가슴 깊은 곳에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 마음 하나로 처음에는 막연하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 개인교습을 받았어요. 큰 공연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연주하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첼로를 연주하는 동안 가장 좋은 점은 내 안의 문제나 고민이 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힐링' 시간이지요. 병원이라는 공간은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업무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첼로를 연주하면 말끔히 해소돼요. 첼로는 익숙한 일상을 환기해주고, 만족감을 줘요. 혹시 악기 연주에 도전하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젠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베키리스트가 바이올린 연주라고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망설이느냐고 물었어요. 당장 바이올린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죠. 제게 첼로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예요. 제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디 가지 않을 거잖아요. 첼로의 중후하고 편안한 소리,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진료운영지원2팀 이광숙 임상병리사

몰입의 경지,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세계 _ 사진

15년 전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사진 세계로 이끌었어요. 한 포털사이트에 '오늘의 포토'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그란 밥상 위에 소담하게 음식이 놓인 사진을 봤어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죠. 그때 '쿵' 하는 진한 울림이 느껴지면서 '아, 나도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풍경사진을 찍었어요. 여행 참 많이 다녔죠. 그 후에는 사진치유로 유명한 달팽이사진골방의 임종진 선생님에게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책을 만들고, 단체 전시를 하면서 사진의 매력에 한층 빠져들었어요. 그때부터 렌즈에 '사람'을 담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낯선 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낯선 동네에 가서 사진 찍어보라'는 말에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출구 앞에서 장기를 두고 계신 할아버지들께 사진 찍어도 되는지 여쭙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구둣방 아저씨와도 작업하고, 옆집 할머니 사진도 찍었죠. 여전히 사람을 찍지만 요즘엔 지인들과 여행 가서 지인을 모델로 사진을 찍어요. 인화한 사진이나 파일을 전해주면 모두 무척 좋아해요. 어느 순간 사진을 내려놓은 적도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아프셨어요. 아파트 노인정에서 할머니들과 사진 작업을 하는 시기였는데, 문득 아버지는 아픈데 내가 낯선 이들과 웃으며 사진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찰칵' 하는 셔터 소리의 청량감을 잊지 못한 거죠. 사진은 저를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세계로 이끌어요. 상처 받았을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가만히 달래줘요. 저를 둘러싼 온 주변이 멍개지면서 주변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깊게 그 순간에 빠지는 몰입의 쾌감이죠. 언젠가는 개인전시, 꼭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진단검사의학과 송훈강 임상병리사

그립감에서 오는 짜릿한 전율 _ 테니스

처음 테니스를 접한 건 중학교 때예요. 시골학교였는데, 테니스를 전공한 젊은 체육선생님이 오셨죠. 선생님이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장을 만들고, 특별활동으로 '테니스반'을 개설했어요. 3년 정도 배웠고, 다시 테니스를 치게 된 건 군대에서였어요. 강원도 양구 2사단 사단장 '테니스병'이었어요. 제대하고 입사하고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내다가 2007년 무렵 다시 테니스를 찾았어요. 문득 '내가 왜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 테니스클럽에 가입하고, 시험에도 나갔어요. 제가 활동하는 테니스 클럽은 제법 실력이 있는 곳이에요. 테니스는 금배, 은배, 동배로 실력을 나눠 시험을 하는데 우리 클럽은 단체전 금배에서 몇 년째 우승을 하고 있어요. 자량은 아니지만(웃음), 개인전 금배에서도 우승했죠. 테니스는 중독성 강한 운동이에요. 한번 테니스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내기 쉽지 않아요. 테니스의 타구감, 그립에서 전해 오는 전율이 짜릿하죠. 테니스를 치면 자연히 건강도 좋아져요. 2015년 진단검사의학과에 와서 2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는데도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요. 2018년 1월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 선수가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 신화를 달성했죠. 그 이후 테니스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때쯤 우리 병원에도 테니스 동호회가 생겼어요. 테니스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도 테니스의 매력에 빠져 보시겠어요?

취향 보러 가자

취향은 사람에게 평생 벗과 같은 존재다. 힘들 때나 우울할 때 취향이 담긴 물건을 보거나 취향에 맞는 행동을 하면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다룬 책과 전시를 소개한다. 나와 다른 타인의 취향을 살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글·유미지 사진·백기영(스튜디오100)



취향의 탄생

톰 밴더빌트 | 토네이도

우리는 왜 특정 인물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어떤 노래가 나오면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일까? 왜 콜라 대신 사이다를 선택할까? 이런 평범한 선택이 모여 나의 취향이 되고, 취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 책은 음식에서 영화, 음악, 좋아하는 색깔에 이르기까지 좋고 싫음의 과정을 거치며 한 사람의 취향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룬다. 작가 톰 밴더빌트는 취향 속에는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취향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취향을 심리학으로 접근해 더욱 흥미로운 책이다.

여기가 좋은 이유

김선아 | 시공사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장소에 굳이 시간을 내어 찾아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좋은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막상 가보면 '여기가 왜 좋다는 거지?' 싶은 때도 있다. 공간이 가진 특징은 천차만별이다. 김선아 작가는 영화 평론가가 영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 주듯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건축가로서 이야기해 주기로 했다. 빛, 공간 나눔, 콘셉트, 비움 등 다양한 공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장소 역시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

취향의 발견

이봉호 | 이담북스

취향의 영역은 아주 넓다. 특정 물건을 수집하는 것에서 마라톤, 바둑과 같은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 책 속에는 희귀 LP수집가에서 20년 차 하프 마라토너까지 오랜 시간 자신만의 취향을 지켜온 1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들이 취향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취향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세하게 적었다. 아직 취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펴보면 어떨까. 이들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말이다.



여행의 취향

고나희 | 더블엔

여행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다. 작가 고나희는 여행을 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살며 자신의 취향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는 것. 작가는 다음 여행지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 글을 쓰는 전업 작가가 되었다. 취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다.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앞두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나의 취향에 맞게 여행하는 방법을 찾을지 모른다.

단번에 상대의 성격을 간파하는 취향의 심리학

제바스티안 프리드리히, 안나 뮐러 | 행성b

누구나 자신의 취향을 지니고 있다. 취향은 소유한 물건, 생활 패턴, 거주 공간에 그대로 드러난다. 정신과 의사이자 교육자 출신인 작가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관찰해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취향이 어떤 성격을, 어떤 심리를 암시하는지 알아냈다. 휴대전화, 넥타이, 여행 가방은 물론 SNS, 심지어 장보기 목록에도 사람의 심리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루의 취향

김민철 | 북라이프

저마다 선호하는 것이 있다. 개인의 물건에서 음악, 책, 취미, 여행, 사람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취향은 '나'라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누구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종종 사람들은 타인의 취향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다. 카피라이터 김민철은 나의 취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존중하고, 내 취향을 기준으로 하루를 꾸리라고 조언한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에게 꼭 어울리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듣고 싶다면 이 책을 펴자.

EXHIBITION



March, 2018 ©Oamul Lu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그림만큼 자신의 취향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있을까? 디지털은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오브제, 애니메이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선보이는 작가 16명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아우르며 '그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작가 개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들의 서로 다른 취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총 350여 개에 달하는 작품이 작가들의 특성에 맞게 연출된 공간, 공간에 맞게 제작된 향, 선별된 사운드와 접목해 전시된다. 덕분에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살아 숨 쉬는 공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시 참여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방적 전시가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전시를 꾀했다.

기간 2019년 9월 1일까지 장소 디뮤지엄

문의 070-5097-4886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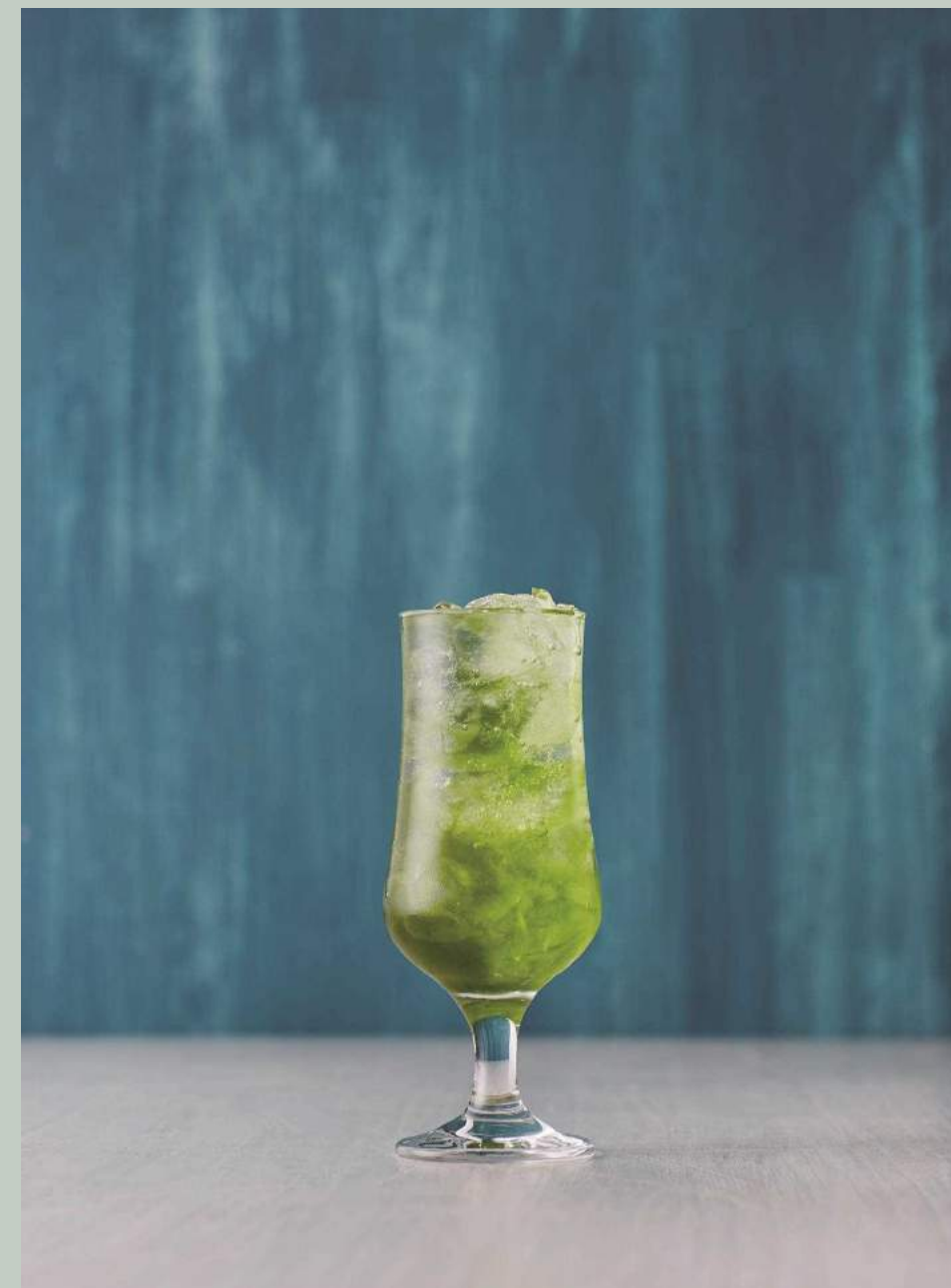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쓴 김난도 교수는 2019년 한국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나나랜드'를 꼽았다. 나나랜드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 기준보다 나를 중요시하는 사회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전시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존 관습과 규범을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나나랜더'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풀어냈다. 한국의 사회문화 현상을 현대미술로 표현한 것도 새롭지만, 관객 참여형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관람하면 좋을 듯하다.

기간 2019년 7월 7일까지 장소 사비나미술관

문의 02-736-4371



윤정미, 핑크 프로젝트 II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닐 파스리처는 낮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냉동 부리토를 먹으며 운동 부족을 염려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이야기 1000가지(www.1000awesomethings.com)'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붙이고 있던 마스크팩을 떼어낼 때, 반려동물의 생일을 축하할 때, 떨어진 음식을 5초 만에 주워 먹었을 때와 같은 사소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뜨거운 여름날 얼음 가득 담긴 시원한 음료 한 잔처럼 사소한 것들 아닐까요? 일상에 흔하게 널려 있는 작은 것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평(스튜디오100)

여름철 요로결석 주의보

생활습관 개선해 예방하자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다. 통증이 산통에 비교할 만큼 심한 질환으로 꼽힌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체내 수분 손실이 많아져 요로결석이 더 쉽게 생긴다. 요로결석의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글 유미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도움말 정두용(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요로생식기계에 생기는 돌, 요로결석

요로생식기계는 소변을 만들고 배설하는 기관이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이뤄진다. 요로생식기계의 각 기관마다 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통틀어 '요로결석'이라 한다.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정두용 교수는 "보통 요로결석과 담석을 쉽게 혼동한다. 담석은 담낭, 간, 담관에 돌이 생긴 것이고, 요로결석은 콩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생성되어 배출되는 장기로 구성된 요로생식기에 발생한 돌"이라고 설명했다. 요로결석은 요로생식기계에서 돌이 뿜어낼 수 있는 성분, 즉 요석 결정의 과다 및 정제, 또 이를 억제하는 물질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요로결석이 생기면 소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심하면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함께 나타난다.

요로결석은 육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20~40세에 가

장 많이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더 잘 발생한다. 또한 계절상으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두용 교수는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는 것이 원인이다. 또한 햇볕에 많이 노출돼 비타민D 형성이 증가하면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면 쉽게 돌의 결정이 생기고 이것이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요로결석 유병률은 약 2%로 보고된다.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이다. 섭취하는 수분량이 감소하면 소변에 요석 결정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석 형성이 증가한다. 또 하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 소인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후천적 생활습관도 연관성이 있다. 요로결석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 사막, 열대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음식, 온도, 습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옆구리나 복부에 갑자기 생기는 극심한 통증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통증, 구역질이나 구토 등을 동반한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는 이들이 흔하게 진단 받는 질환이 요로결석이다.

요로결석의 초기 증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복통이다. 이때 구토, 오심, 혈뇨를 동반한다. 요로결석은 위치, 크기, 요로계의 폐쇄 정도, 감염 유무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보통 옆구리나 복부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수분에서 수십 분 지속되다 사라진다. 요로결석 통증은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육안적 혈뇨를 경험하고, 90%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혈뇨가 발견된다. 빈뇨, 배뇨 통증, 잔뇨감 등 배뇨 이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을 보이거나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수신증이 심해지면서 신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요로결석, 어떻게 치료하나

요로결석은 결석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나뉜다. 먼저 3mm 이하의 작은 요로결석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대기요법 기간 동안에는 진통제를 복용해 통증을 예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러나 4~6mm의 돌은 50% 미만, 6mm 이상에서는 5% 미만만 자연 배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요로결석 치료방법은 크게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쇄석술, 경피적 신쇄석술, 복강경 및 개복술, 용해요법을 꼽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해 결석을 분쇄, 크기를 작게 만들어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대개 1cm 내외의 돌들은 1~2회 시술하면 자연 배출되는 작은 크기로 깨진다. 보통 2주 정도 후에 자연 배출되며 3개월 정도 지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돌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그 이상 시술하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임신부는 시술이 어려우며 요로폐색,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가임기 여성 등도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쇄석술은 1회에 완전제거율이 66~100%에 이른다. 입원과 마취가 필요하지만 높은 성공률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시경 장비가 발달하면서 신장 안에 있는 결석까지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경피적 신쇄석술은 주로 크기가 2cm 이상인 신장 내 결석을 치료한다. 외부에서 피부를 통해 콩팥대롱까지 길을 낸 후 내시경을 삽입, 결석을 분쇄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장비가 발달해 구멍 크기가 작고 그만큼 안전하게 시행한다.

복강경 및 개복 수술은 내시경 치료가 발달하면서 빈도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상부 요관에 큰 결석이나 이전 수술력,

방사선 치료 등으로 내시경 진입이 어려운 환자는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이 효과적이다. 용해요법은 대개 소변이 산성인 상태에서 생기는 돌(요산석 등)에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요산석 같은 특정한 결석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요로결석 예방하고 재발 막는 생활습관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정두용 교수는 "요로결석은 10년 내 50%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한다. 요로결석은 온도, 습도, 음식, 운동량은 물론 기후 및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로결석을 앓은 사람들은 생활습관을 개선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인 것이 좋으며, 그러려면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운동 전후, 사우나 전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두용 교수는 "수분은 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탄산음료, 과일주스, 차에는 결석 성분의 하나인 수산이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 중 칼슘과 인산염, 혈중 요산치가 증가해 결석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요로결석의 주요 성분인 칼슘을 제한하기 위해 멸치나 우유를 피할 필요는 없다. 지나치게 칼슘 섭취를 제한하면 요석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과칼슘뇨증과 같은 대사 이상을 진단 받은 환자만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칼슘을 제한하면 된다.

③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고염식은 칼슘석 등 거의 모든 결석의 생성을 촉진하는 원인이다.

④ 과다한 육류 섭취를 자제한다. 육류에는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요산과 칼슘, 수산 등이 풍부하다. 또한 요로결석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생성을 막아 요로결석 생성을 촉진한다.

⑤ 수산이 풍부한 음식은 피한다. 시금치, 초콜릿, 아몬드, 땅콩, 잣, 호두, 콜라, 딸기, 코코아, 커피, 술 등을 자주 섭취하면 수산과 칼슘에 의한 요석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⑥ 구연산이 포함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오렌지, 레몬, 자몽, 귤, 그레이프프루트 등 시큼한 과일류에 구연산이 많다.



정두용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선 질환 및 일반 비뇨 등을 진료하고 있다. 정두용 교수는 요로결석 예방법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을 추천한다.



폐암 환자에게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2016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졌다.
폐암은 의심할 만한 특이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고, 발견하면 이미 말기인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어렵다.
이에 인하대병원은 폐암을 극복하고자 폐암 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폐암센터를 이끄는 이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유미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전체 암 사망자의 사망 원인 1위, 폐암

폐암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남자의 폐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69.7명꼴로 전체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반면, 여자는 10만 명당 31.2명꼴로 5위를 기록한다. 폐암이 위암이나 갑상선암, 대장암보다 발병률이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암 사망자의 22.8%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5년 상대생존율은 26.7%로 10.8%인 췌장암 다음으로 낮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조기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약 70%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 치료가 어려운 병기 상태에서 발견한다. 초기 병기인 1기에 폐암을 발견하면 5년 생존 가능성이 70% 이상이지만, 3기 또는 4

기에 진단 받으면 치료를 받더라도 5년 생존 가능성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따라서 폐암은 무엇보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증상으로는 발병 예측이 불가능한 폐암

일반적으로 암이 발병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통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폐암은 그렇지 않다. 별다른 증세가 없거나 폐암의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가 나와도 감기라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폐암을 '소리없이 찾아드는 암'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장이자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는 폐암은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폐암 환자나 가족과 상담할 때면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왜 증상이 별로 없나

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폐암은 초기에서 말기로 진행할수록 여러가지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말기환자라도 기침, 가래 같은 가벼운 증상조차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증상과 병의 진행 정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의 조사 결과, 말기 폐암 환자의 7~8%가 진단 당시 어떠한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되는 기침, 가래에 피 섞임, 목소리 변화, 식욕 감소 혹은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폐암을 의심하고 폐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다.

폐암의 발병 원인 70%는 흡연,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어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지식이 아닌 상식이다. 전문의들은 현재 전체 폐암의 7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1980년대 70~80%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은 현재 40%대로 감소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10배 높으며, 간접흡연도 1.5~2배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폐암 환자에게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의 비율이 1997년 20.6%에서 2005년 24.1%, 2013년 3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는 과거 20%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30%에 달한다. 이에 대해 류정선 교수는 "흡연 이외에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라돈, 비소, 크로뮴, 니켈, 석면, 방사선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밖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폐섬유화증 같은 폐 질환도 폐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가족력을 보이는 환자도 있어 전문의들은 폐암 발생에 유전적 요인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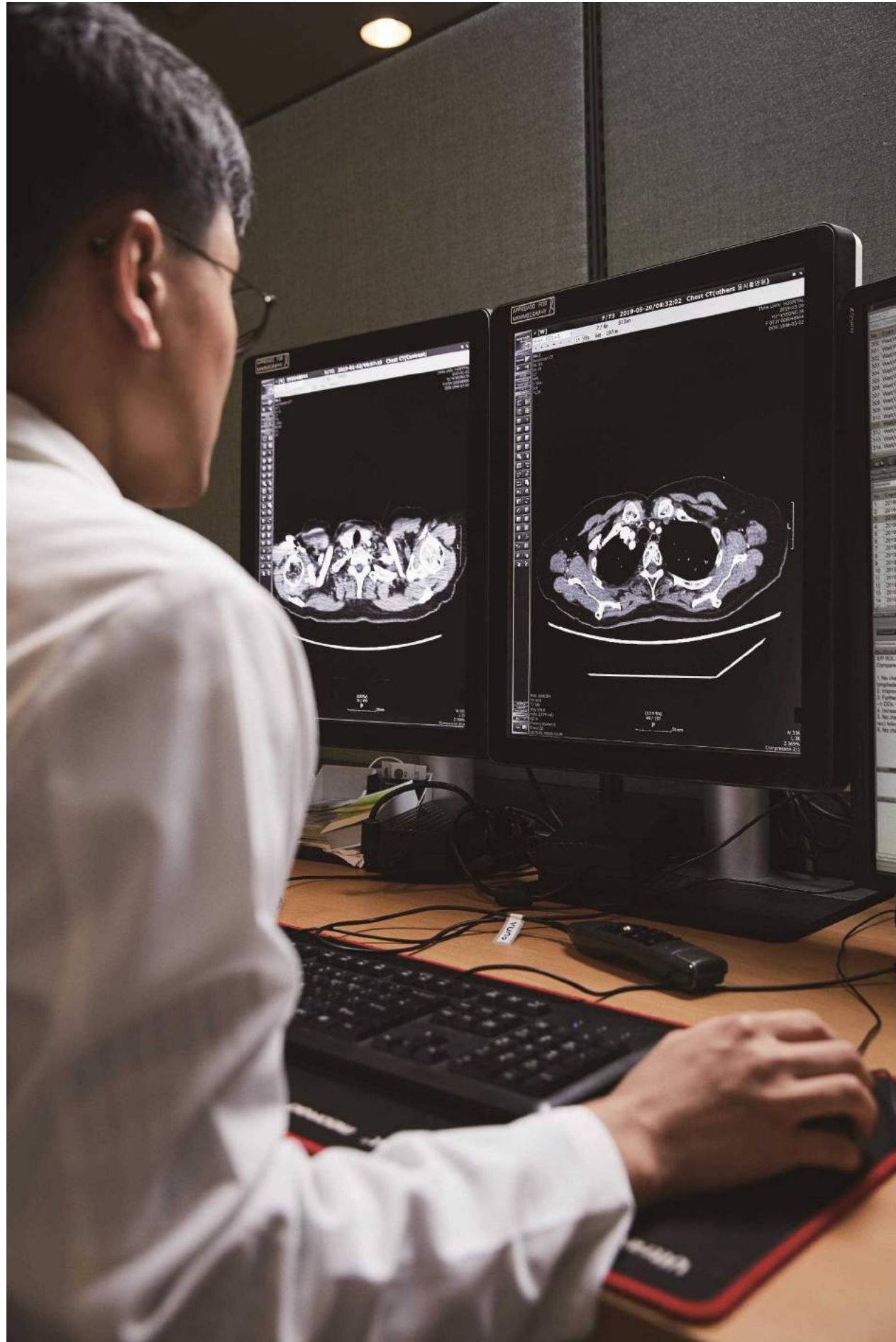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난치성 폐암을 극복하고 폐암 환자들에게 국내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09년 5월 26일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폐암센터'를 개소했다. '환자 중심, 연구 중심'이라는 두 가지 모토를 가진 폐암센터는 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정신과 전문 의료진과 협진하고 암코디네이터, 연구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인하대학교 폐암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폐암 진단 장비를 갖추었다. 류정선 교수는 "기관지내시경 초음파(EBUS)와 현존하는 모든 CT기술이 집약되었다고 불리는 '레블루션 CT'를 이용해 최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폐암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기관지내시

경 초음파는 인하대 폐암센터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도입했다. 그밖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폐암 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인 64채널 멀티 슬라이스 CT스캔, PET-CT스캔 및 사이버 나이프, 세기조절·영상유도 방사선 치료기 등의 장비를 진단과 치료에 적용해 보다 신속한 진단을 도모한다. 또 광역동치료기, 냉동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폐암 치료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비디오희강경을 이용한 로봇 수술을 시행 중이다. 특히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유전 특성을 지닌 환자를 분석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의 환자 수가 개소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80% 증가했다. 류정선 교수는 환자에게 병에 대해 설명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가 입원해서 진단과 병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한 것을 요인으로 꼽는다. 한편,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폐암센터는 인하대병원 진질직원상, 친철부서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 시행한 환자만족도 조사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연구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될 수준의 논문을 3편 발표하고, 정부 연구과제 수주 10건, 국내·국제학회 학술상 6회, 복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보였다.

류정선 교수는 "인하대학교 폐암센터는 폐암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코디네이터 간호사와 직원들이 온 마음을 다한다. 연구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조직검사를 피하는 대신 최첨단 진단법을 개발하고,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병원 의료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폐암센터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진단과정

폐암을 진단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처럼 다양한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선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단순 X선 촬영과 CT로 불리는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다. 흉부 CT에서 종양이 확인되면 가래세포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경피적 미세침흡인세포검사, 흉수천자 및 흉막 조직검사, 수술적 조직검사를 해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하고, 암 진위 여부와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에서는 폐암 전문가가 이들 진단방법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검사법을 선택해 검사를 시행한다. 조직검사에서 채취한 조직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슬라이드로 만든 후 병리와 전문의의 판독 과정을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린다. 이어 PET-CT, 뇌 MRI, 뼈스캔 검사 등 추가 영상의학 검사를 이용해 암세포가 림프절 및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폐암 병기를 결정한다. 진단 후에는 면역염색,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NGS 등을 통하여 환자가 표적치료나 면역치료를 적합한지 판단한다.

다양한 치료제와 치료법이 있는 폐암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조직학 기준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은 한자 '작을 소(小)' 자를 써서 소세포폐암이라 하고, 작지 않은 것은 비소세포폐암이라 한다.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을 구분하는 이유는 임상적 경과와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소세포폐암은 진단 당시 수술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급속히 성장해 전신으로 전이되곤 한다. 소세포폐암인지 비소세포폐암인지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병기, 면역염색 및 유전자분석 결과, 환자 전신 상태, 동반 질환, 폐기능 검사 등 여러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핀 뒤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치료 중 환자에 맞는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암 1기, 2기와 3기 중 일부 환자는 수술 치료를 하고, 수술치료 후 확정된 병기가 2기 이상이면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한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폐기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이 불가능한 3기에서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4기는 면역치료제,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항암화학치료와 함께 증상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소세포암은 비소세포암보다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대개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항암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 암이 한쪽 폐에만 있어 질병이 뺏어나가지 못하는 상태인 '제한기'에는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한다. 반면 암이 뇌나 뼈와 같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확장기' 환자는 항암화학치료를 한다. 치료 효과가 좋아 암이 소실되면 재발 예방을 위해 뇌 방사선 치료를 한다.

종양마다 다른 특정 단백질 발현 혹은 유전자변이의 차이는 환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제 선택에 한 몫을 한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에서는 면역염색법이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활용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선별한 후 특정 유전자 기능을 차단하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한다. 표적 치료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로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으로 변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표적치료제 사용 후 일부 재발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다시 조직검사를 하거나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분석 과정을 거친 후 재발 유전자가 발견되면 여기에 맞는 후속 표적치료제를 다시 적용한다.

면역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면역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에게 잘 듣고 안 듣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류정선 교수는 "최근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 개발로 항암화학치료 효과가 개선됐지만 완치를 기대할 만큼은 아니다. 효과치료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보험도 문제다. 면역치료제는 표준 항암화학치료 후 재발에 한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폐암 진단 후 바로 항암화학치료와 면역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에도 조속히 보험급여가 적용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영화 <지중해>와 <위트니스> 현대인의 꿈, 일탈과 도피

누구나 도피를 꿈꾼다. 힘든 현실을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아무 속박을 받지 않고 나른하게 살고 싶다. 오늘 소개할 영화 <지중해>와 <위트니스>는 일상에서 일탈한 공간에 머물게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글 송준호(대외홍보정책 실장·신장내과 과장) 사진 출처 구글



‘이런 시대에 살아남아서 꿈을 꿀 수 있는 길은 도피뿐이다’
(영화 <지중해> 오프닝 자막)

인간에게 일과(日課)의 개념이 생긴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사건이다. 산업 혁명으로 공장이 세워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인간은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고, 다시 일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휴식을 하는 고단한 삶을 받아들여야 하게 되었다. 찰리 채플린은 이런 당대의 모습을 영화 <모던 타임즈>(1936)에서 생생하게 그려냈다.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 생산을 기치로 하는 포드즘(Fordism)은 사람들의 가치와 욕구까지 표준화 했다. 좀 더 유연해진 포스트포드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세워진 욕망대로 살아간다. 자크 라캉은 ‘사람들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오늘도 사람들은 대열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린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쉬는 것’과 ‘먹는 것’은 노동에 재투입되기 위한 충전의 의미로 전략한 지 오래다(최근의 ‘먹방’이나 ‘음식 영화’, ‘떼 지어 노는 예능’의 유행은 사람들이 다시 순수한 욕구의 지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성적 욕구’도 호르몬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허식이자 노동이고, 무엇보다 노력과 대가가 따른다. 사람들은 고된 일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가와 여행’을 떠나지만 가짜야 레저 산업의 뒷모습으로 들어갈 뿐이다.

‘일탈’과 ‘도피’를 향한 인간의 갈구는 역사가 깊다. 고대 중국에는 나무하러 간 길목에서 신선들이 바둑 두는 것을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돌아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 도끼자루가 썩어 있더라는 나무꾼의 이야기가 전해져 서양에도 무서운 마누라를 피해 사냥을 갔다가 깊은 산 속에서 재미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 돌아오니 20년이 지났더라는 ‘립벤윙클’의 전설이 전해진다. 사람이 ‘도피’를 꿈꾸며 상상한 이상향은 동양

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대표적이다. 서양에서는 오디세이아의 ‘칼립소의 오기기아섬’, 고대 켈트 족의 ‘아발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 인류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홍길동전의 울도국, 제주도의 전설 이어도가 있다. 이창준은 소설 <이어도>에서 그곳을 이렇게 묘사한다. ‘긴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지중해 풍광 속 나른하고 평화로운 이야기, <지중해>

오늘 소개할 영화 <지중해>와 <위트니스>는 일상에서 일탈한 공간에 머물게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먼저 <지중해>는 1991년 이탈리아의 가브리엘 살바토레가 감독하여 1992년 아카데미 외국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는 1993년 개봉했다.

2차대전이 한창일 때 무솔리니 휘하 이탈리아군은 특별한 전략적 이유도 없이 지중해의 작은 섬 미가스티에 8명의 소대를 파견한다. 도착한 섬에는 인적 없이 닭들만 뛰어 놀고 있다. 한밤중 해상 전투가 벌어지고 병사들은 자신들을 데려갈 전함이 침몰해버린 것을 알게 된다. 불안이 가중된 소대원들은 부대 당나귀를 오발로 죽이고, 화가 난 당나귀 당병은 무전기를 집어 던져 고철로 만들어버려 병사들은 꿈쩍 없이 섬 생활을 시작한다.

병사들만 배회하던 섬에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이 나타난다.

피난에서 돌아온 주인들은 모두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먼저 점령했던 독일군이 모두 끌고 갔다고 한다. 지도자인 늙은 그리스 정교회 신부는 독일군이 아닌 걸 알고 다시 돌아왔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하나의 얼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한다. 병사들은 주민들과 어울려 밝은 지중해 햇빛 아래서 뛰어 노는 완벽한 낙원 생활에 빠져든다.

<지중해>는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 관찰자 시점이기도 한 소대장 몬티니 중위는 소대원들의 뜻을 따라 섬에 남기로 결정하지만 자신도 섬 생활을 만끽한다. 부소대장 로루소 상사는 부사관들이 그렇듯 노련하고 열정이 넘친다. ‘국가가 우리를 잊었으니 나도 여기서 즐기겠노라’ 큰소리치지만, 귀환할 때는 파시즘과 싸우는 조국 재건에 기여하려는 의욕을 가진다. 고아 출신 당병병 파리나는 마을 창녀 바실리사와 결혼을 선언하고 섬에 터전을 만든다. 상습 탈영병 노벤타는 가족과 집이 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호시탐탐 섬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쓴다.

3년의 꿈 같은 생활이 지난 어느 날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한다. 병사들은 조종사에게서 무솔리니는 죽고 이탈리아는 양분된 사실을 알게 된다. 비행기가 떠난 얼마 후, 섬에 영국 해군이 찾아오고 독일군에 끌려갔던 마을 남자들이 귀환한다.

이제 병사들이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파리나는 귀환을 거부하고 마을 창고 빈 올리브통에 숨는다. 그를 찾



무솔리니 휘하 이탈리아군은 전략적 이유도 없는 지중해의 작은 섬에 8명의 병사를 파견한다. 병사들이 도착한 섬에는 인적 하나 없이 닭들만 뛰어 놀고 있다.





병사들은 지중해 햇빛 아래서 뛰어 노는 완벽한 낙원 생활에 빠져든다. 꿈 같은 3년이 지나고 병사들이 귀환할 때 유일하게 귀환을 거부한 파리나는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며,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말한다.



아넌 로루소 상사에게 파리나는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며,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말한다. 로루소는 중위에게 파리나는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다.

40년이 지나 백발이 된 몬티니 중위가 섬을 찾아온다. 그리움에 찬 표정으로 마을을 돌아보던 몬티니는 마을 모퉁이 자리한 바실리사의 무덤에 조의를 표하고, 파리나가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가다. 몬티니는 파리나의 음식점에서 로루소 상사도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로루소는 전후 조국 재건에 지쳐 늘그막에 섬으로 돌아와 파리나의 식당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파리나의 물음에 몬티니는 '나도 도와주겠다'고 대답하고 70대에 만난 전우들은 함께 술을 마신다.

<지중해>는 영화적 기법이나 기교를 따질 필요 없이 순박한 사람들과 우화적인 이야기, 지중해의 풍광이 어우러지는 장면만으로 아름다운 영화이다. 좋은 영화에는 반드시 좋은 음악이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풍이면서 더 짙은 향수를 풍기는 지안카를로 비가치(Giancarlo Bigazzi)의 주제 음악은 그리스의 현악기 투벨레기와 리라의 음색과 리듬감으로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청각적으로 고취시킨다.

재미와 작가주의 감동이 조화된 <위트니스>

두 번째로 선정된 영화 <위트니스>는 1985년 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개봉한 작품이다. 당대 액션 배우 해리슨 포드와 호주 뉴에이브의 가수 피터 위어 감독이 함께 만들어 재미있으면서 작가주의 감동도 충분히 배어 있는 명작을 만들었다. 1985년 아카데미상 8개 후보에 올라 각본상과 편집상을 수상했다. 피터 위어는 창의적이면서 감성적

인 스토리텔링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차례 받았다. <죽은 시인의 사회>, <트루먼 쇼>가 그의 작품이다.

<위트니스>에서의 도피처는 아미쉬(amish) 마을이다. 아미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보수 개신교 공동체다. 이들은 21세기 현대 문명을 배척하며 18세기 전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전기, 전화, 자동차를 쓰지 않고,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옛날 보닛을 쓰고 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들에게 외지인들은 모두 영국인(English)이다.

영화는 차분한 모리스 자르의 음악과 함께 바람에 쓸리는 푸른 밀밭, 검은 옷과 모자를 쓴 아미쉬 사람들, 마차의 행렬로 시작한다. 젊은 미망인 레이첼(켈리 맥길리스)은 어린 아들 사무엘과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살인 사건을 목격한다. 형사 존 북(해리슨 포드)은 이 사건이 고위직이 연루된 경찰 부패 사건임을 알게 된다. 조사 중 범인들에게서 충격을 받은 존 북은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 마을로 데려다 준 후 정신을 잃는다.

아미쉬 마을에서 회복한 존 북은 낯설지만 순박한 사람들과 전통에 점차 동화한다. 발목이 드러나는 우스꽝스런 바지에 충 대신 목수의 연장을 차고, 사람들의 시선을 짐짓 모른 채하면서 마을을 어슬렁댄다. 레이첼은 존 북에게 애정을 느끼지만 아미쉬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기에는 주저한다. 레이첼의 목시적 정혼자인 마을 사내 호크라이트너는 수시로 존 북을 견제하지만 10대 아이들의 애정 놀이마냥 밟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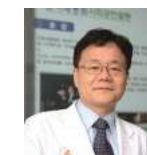
영화의 정점은 신혼부부를 위해 온 마을 사람이 모여 햇간을 짓는 장면이다. 푸른 하늘과 풀밭 위에서 남자들은 목수 일을, 여자들은 점심을 준비하는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

다운 감흥을 준다. 감동을 고조시키는 주제 음악 'Building the barn'을 만든 사람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 등 평생 200편의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 모리스 자르이다. 바람에 쓸리는 푸른 밀밭의 오프닝과 함께 이 장면은 이 영화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위트니스>가 낳은 또 하나의 음악은 샘 쿡(Sam Cook)의 'What a wonderful life'이다. 햇간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던 존 북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에 맞춰 레이첼과 춤을 추는 장면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일 것이다.

존 북의 행복한 '일탈'은 아미쉬 사람들이 무례한 관광객들과 부딪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난다. 아미쉬들은 수백년의 전통을 지켜 인내하지만, 존 북은 자기 세계의 룰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존 북을 찾던 범죄자들의 주목을 끈다. 아미쉬 마을로 침입한 범죄자들과 조우한 존 북은 자신의 방법, 총과 폭력으로 방어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를 구해주는 것은 낫과 쟁기를 버리고 맨손으로 달려온 아미쉬 사람들이다. 모든 일이 끝나고 떠나는 존 북에게 아미쉬 사람은 '영국인'을 조심하라 일러준다.

누구나 도피를 꿈꾼다. 힘든 현실을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아무 속박을 받지 않고 나른하게 살고 싶다. 두 영화가 상영된 1986년과 1991년은 한국이 정치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산업화 사회 말기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때였다. <지중해>의 오프닝 자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길은 도피뿐'이던 그런 시절에 두 영화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다. 사실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도피이다. 세기 말보다 더 암울한 지금(그때는 피곤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멀티플렉스에서, 마블의 세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도피가 영원할 수 없다. <위트니스>의 존 북과 레이첼은 서로 사랑하지만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간다. <지중해>의 로루소 상사는 섬에서 겪은 나른하고 몽환적인 도피가 아이들의 방학 같다고 말했다.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듯 모든 도피는 현실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야 완벽하게 완성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시 도피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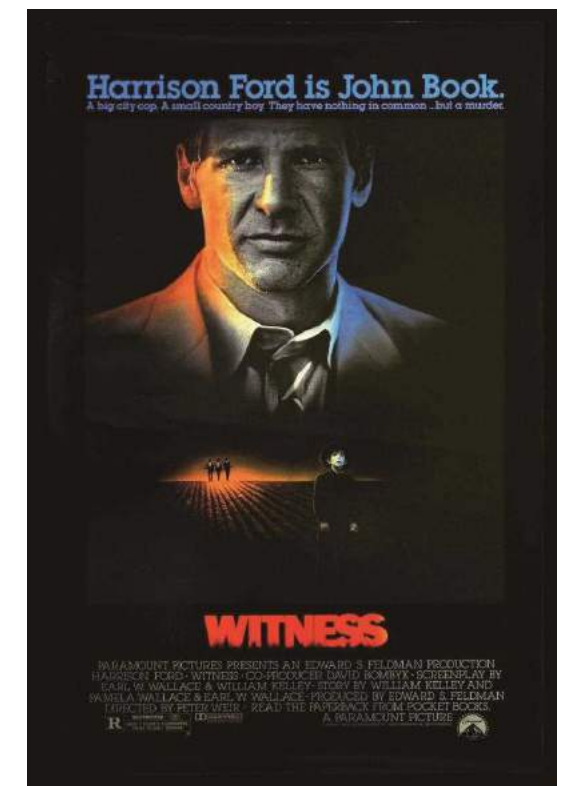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3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챗터 저술을 한, 손꼽히는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인하대병원 대외홍보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신문 시민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본지를 위해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21세기를 사는 18세기 사람들인 아미쉬는 현대 문명을 배척하며 외지인은 영국인(English)이라고 부른다.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된 레이첼과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해 아미쉬 마을로 가게 된 형사 존 북은 낯설지만 순박한 아미쉬 마을의 사람들과 전통에 점차 동화된다.



여름 안에서 찾은 건강음식

수박화채와 초계국수

태양의 기운이 우리를 쉬지치게 하는 여름이다. 여름 보양식으로 즐기는 초계국수와 달콤한 수박화채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 우리의 뜨거운 속을 시원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수박화채

재료(2인 기준)

수박 1/6통, 사과 1/4개, 탄산수 1캔, 오미자차(시판용) 200mL, 설탕 약간

만들기

- ① 수박과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② 탄산수 1캔과 오미자차를 섞고, 설탕을 취향대로 넣는다.
- ③ 그릇에 수박과 사과를 담고 탄산수를 넣는다.

초계국수

재료(2인 기준)

파프리카(빨강, 노랑) 1/4개씩, 양파 1/6개, 오이 1/4개, 삶은 달걀 1개, 닭 가슴살 2개, 메밀면 2인분, 동치미 냉면육수 2팩, 겨자·식초·무순 약간

만들기

- ① 파프리카(빨강, 노랑), 양파, 오이를 채 썬다.
- ② 닭 가슴살은 소금물에 삶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는다.
- ③ 끓는 물에 메밀면을 삶고, 찬물에 씻는다.
- ④ 그릇에 면을 담고 썰어 놓은 채소와 닭 가슴살, 달걀을 담고, 동치미 냉면육수를 붓는다.
- ⑤ 겨자와 식초는 취향대로 넣는다.



강원도 삼척 여행

심, 치유, 여름 바다의 낭만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푸른 파도 넘실대는 그곳에서 우리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는다. 파도에 부서지는 햇살처럼 천진하게 웃는다. 강원 삼척에서 여름 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몇 가지 방법. 글 박지영 사진 제동환(스튜디오100)





해양레일바이크 타고 바다를 달리다

동쪽 바다를 곁에 두고 해송 숲 사이를 달리는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도 여름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낭만이다. 해양레일바이크는 우리나라 곳곳에 많지만 바다를 품고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이곳이 유일하다.

곰솔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는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킬로미터 복선으로 운행한다. 궁촌역과 용화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전망대가 있는 휴게소,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가 연출되는 환상의 해양터널은 신비로운 바다 속을 여행하는 느낌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오픈하니 참고하자. 하루 총 5회(9시, 10시 30분, 13시, 14시 30분, 16시) 운행한다.

곰치국과 너와머루와인

삼척항의 비릿한 내음이 도시를 떠나 여행지에 왔음을 알린다. 삼척항에는 횃집이 즐비하다. 그 자리에서 펄떡이는 생선을 구입해 신선한 회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또 삼척은 얼큰한 곰치국으로 유명하다. 50여 년 전, 동해안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바다 속을 휘젓고 다니는 거무스레한 물고기를 발견했다. 몸길이가 1미터 정도 되고, 퉁퉁하고 거무스레한 모습이 마치 곰처럼 생겼다고 해서 '곰치' 또는 '물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곰치가 식탁에 오른 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그전에는 생김새와 흐물거리는 살 때문에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즉시 바다에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대받던 곰치가 맛있는 생선으로 대접받게 된 것은 뱃사람들 덕분이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는 이들에게 술만 한 큰 위안거리는 없었다. 특히 매서운 추위까지 이겨내야 하는 겨울에는 말술을 들이켜고, 자연히 아침이면 쓰린 속을 달래야 했는데, 이때 팔지 못하는 곰치로 국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흐물거리는 살 덕에 부드러운 곰치국이 거북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어 숙취 해소에 최고였다. 이후 입소문이 퍼지며 삼척에서는 곰치국이 겨울철 해장국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름만큼 둔해보이고 못생겼지만 곰치는 짬, 탕은 물론 회로도 먹는 맛 좋은 생선이다.

삼척의 너와마을에서 만드는 너와머루와인도 유명하다. 너와마을 주민들은 특화작물을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03년부터 삼척의 기후조건이나 특성에 잘 맞는 머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머루를 이용해 품질 좋은 머루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쉬엄쉬엄 여름날 바다 여행

한반도 등뼈를 지르는 7번 국도, 강원 고성 of 통일전망대부터 최남단 부산 송정해수욕장까지 약 515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이다. 웅장한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쪽빛 동해바다를 끼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삼척 원덕읍 임원항에서 동해 추암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 삼척시 구간은 동해안 제일의 풍광을 자랑한다. 동해안의 비경을 제대로 보려면 삼척 해안도로를 달려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해안 절벽과 밀려오는 파도가 그림처럼 어우러지고, 먼 바다에 잠시 머무는 작은 어선들이 한층 정겹게 다가온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끼고 달리는 4킬로미터 길이의 새천년도로는 또 어떤가. 삼척항과 삼척해변을 잇는 이 길은 동해안에서도 으뜸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새천년이 열리는 2000년을 기념해 조성했는데, 이곳에 만든 소망의 탑, 비치조각 공원에서 푸른 바다 조망을 즐기기도 충분하다.

해상케이블카 타고 바다를 날다

7번 국도는 삼척의 장호해변을 지난다. 풍광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곳은 나그네에게 어서 들렀다 가라고 반갑게 손짓한다. 장호항은 반달 모양의 아름다운 해안선 덕분에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장호해변은 에메랄드빛 백사장 자랑하고, 절벽을 따라 형성된 산책로는 가볍게 산책하기 그만이다. 매년 여름에는 투명카누 생태체험, 스노클링 체험 등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호비치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여름 캠핑을 즐겨도 좋다.

장호항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7년 9월, 장호항부터 용화리까지 약 874미터 구간을 운행하는 삼척해상케이블카가 생겼다. 케이블카에서는 동해의 수려한 해안선과 기암절벽이 가슴에 안긴다. 하늘 위로 등실 떠 있는 케이블카를 타면 바다를 비행하는 아찔하고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오십천이 흐르는 관동팔경 죽서루

삼척의 바다를 누렸다면 잠시 시내로 눈을 돌리자. 죽서루는 삼척시 성내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누각으로 보물 제213호다. 여기에 의미가 하나 더 있다. 예로부터 관동팔경으로 꼽히는 죽서루는 삼척시의 서편을 흐르는 오십천(五十川)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고귀한 자태가 장관이다. 죽서루 안에 있는 용문바위는 신라 문무왕이 지켜주는 소원 비는 장소로 꼽힌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로 북적인다.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오십천, 죽서루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오십천과 죽서루 역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경치다.

● 놀치기 가까운 삼척의 또 다른 여행지

해신당공원과 수로부인헌화공원에서 바다 감상하기

동쪽 바다를 감상하기 좋은 두 공원이 있다. 해신당공원과 수로부인헌화공원이다. 모두 해안가에 만들어진 야외공원으로 삼척 바다를 원 없이 구경하기 좋다. 이들 공원에서는 장엄한 동해 해돋이까지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동굴 속으로, 환선굴과 대금굴

삼척은 환선굴, 대금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개의 석회 동굴을 보유하고 있다. 5억 년 전 고대신비를 간직한 환선굴, 대이리 동굴지대 내 위치한 대금굴이 있다. 특히 대금굴은 모노레일을 타고 동굴 속 140미터까지 들어가는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봄날은 간다〉, 〈외출〉 영화를 따라

삼척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와 〈외출〉의 촬영지이다. 삼척 해변, 삼흥모텔, 신흥사 등 영화 촬영지였던 장소를 따라가보는 것도 삼척을 여행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인하대병원 피아노 라운지

당신에게 피아노 선율이 필요한 순간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한 말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복잡한 날, 유독 울적한 날 듣는 음악 한 곡은 묘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뿐인가요, 괜스레 기분 좋은 날 음악까지 더하면 마음은 한껏 날아오릅니다. 최근 인하대병원 지하 1층에 검은색 우람한 건반악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인하대병원 CEO 11기 원우들이 기증한 피아노입니다. 오늘,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다면 인하대병원 피아노 라운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잔잔한 선율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고단한 마음이 사르르 녹고 웅이진 마음이 해설해실 풀릴 거예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연주시간: 월·수·금

시작 시간	종료 시간
11시	11시 30분
11시 40분	12시 10분
12시 50분	13시 20분
13시 30분	14시



초록색 여름 풍경

여름의 주인공은 ‘초록’입니다. 주위 풍경이 연둣빛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사이, 여름이 왔습니다. 이 즈음 과거 여름방학을 떠올려 볼까요? 뜨거운 여름의 초록 자연 안에서 우리는 무력무력 성장했습니다. 지금과 사뭇 달랐지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대신 시골 할아버지댁으로 갔고, 2학기 교과서 대신 자연이라는 웅장한 교과서를 선물 받았습니다. 느릿느릿 완행열차를 타고, 덜컹덜컹 버스를 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달리고 나서야 도착했던 시골집. 이곳에는 마냥 천진했던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초록 풍경이지만, 마음을 놓아도 좋은 여름입니다.

글 편집부 사진 제동환(스튜디오100)



인하대병원 시설팀 늘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화려한 무대 뒤에 많은 이들이 일하듯 인하대병원에도 환자와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인하대병원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박근택, 김영기, 김태중, 김지현, 최보람 씨가 <인하가 만난 사람>의 주인공이다. 거대한 규모의 병원 시설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시설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 글 유미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인하대병원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 속하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의 수가 많다. 400여 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총 직원 수가 2천 800여 명인데다 병상 수만 해도 925개에 달한다. 방문객과 이용객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하대병원을 찾는다. 다수가 오가는 병원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상급종합병원에 시설팀이 필요한 이유다. 인하대병원 시설팀은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 부분은 건축, 기계, 전기 부문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 부분은 환경,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병원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물론 전기, 수도, 의료가스 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설비의 기능 또한 점검한다. 또 계절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 등을 빈틈없이 수행해 오늘도 인하대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1 환경담당 박근택 차장의 이야기

박근택 차장이 인하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3년 전이다. 인하대병원이 정식 개원하기 전인 1995년에 입사해 지금까지 인하대병원의 시설과 안전을 책임져 왔다. 병원은 특히 전기, 수도, 의료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또한 신경 써야 한다. 소방 안전은 물론 의료폐기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4년마다 한 번씩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종합병원 인증제'를 운영한다. 이 인증 기준이 보통 까다롭지 않다. 박근택 차장도 이에 동의한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무척 피곤한 일이에요. 인증검사 때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생겨나고 이를 맞추려고 이것저것 바꾸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하

지만 학창 시절 시험을 보면서 실력을 키웠듯 1~2년 마다 반복한 여러 인증 평가로 말미암아 인하대병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시설 안전 부문 수검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인지 인하대병원은 국내 어떤 대형병원보다 먼저 2010년에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USA) 국제인증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지역 최초로 상급의료기관인증을 3연속 획득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병원의 위상을 높여온 시설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것도 힘들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공이 들어요. 보다 많은 점검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에 다방면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이는 시설팀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협력사 직원들과 함께할 때 가능하죠. 시설팀 직원들과 시설관리 협력사 직원 모두 '인하대병원의 안전은 시설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계담당 김영기 차장의 이야기

김영기 차장은 인하대병원 시설팀 기계담당자로서 병원 내 냉·난방을 위한 공기 조화 설비 및 의료가스 공급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나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만큼 전기나 수도, 의료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꼼꼼한 기계 설비가 최우선이다. 김영기 차장이 요즘 특히 신경 쓰는 것은 병원내 공기의 질이다. "개원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공기 조화 설비 및 승강기 등 크고 작은 기계 설비를 교체, 보완할 시기가 되었어요.

다행이 많은 비용이 드는 냉·난방 냉온수기 교체 공사는 작년엔 모두 끝나 이미 공기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는 3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원내 모든 공기 조화 기기를 HEPA필터 버금가는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최신형으로 교체했어요. 덕분에 초미세먼지(PM 2.5)를 대비했죠. 환자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니 병원의 공조관리 담당자로서 뿌듯합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이 보다 빨리 낫기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인하대병원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병원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한다고 자신합니다. 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병원, 깨끗한 환경의 쾌적한 병원에서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3 김태중 방재실장의 이야기

뉴스를 보면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가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내는지 잘 알 수 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인만큼 불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화재와 관련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인하대병원은 소방시설 관리와 방화 순찰을 자주 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쓴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김태중 방재실장이다. 그는 전직 소방관 출신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인하대병원은 올해로 개원 23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사용해온 건물인만큼 소방시설이 노후된 곳들이 있다. 그래서 더 자주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설의 수리, 보완에 애쓴다.

소방 안전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

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방화 순찰을 돌다보면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두거나 적재 상한선을 넘긴 채 쌓아둔 물건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바쁜 업무 특성상 개선이 쉽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김태중 방재실장의 바람이다.

그는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

“인하대병원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은 병원 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디 화재 예방 뿐 아니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전기담당 김지현 대리의 이야기

김지현 대리는 인하대병원 전기담당자다. 한전의 고압전력을 원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 및 원내 조명 설비를 비롯한 각종 전기시설 그밖에 승강기, 기송관, 호출설비 등을 관리한다. 요즘 그는 오래된 병동부와 외래진료부 등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함께 공기 조화 설비 및 승강기를 교체하는 등 크고 작은 시설공사들을 함께 진행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를 포함한 시설팀 직원들은 환자와 임직원들이 한시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사별 안전관리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요. 최근 병원에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소음이나 분진 발생이 큰 공정이거나 전기, 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는 가능하면 진료시간대를



피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야간이나 휴일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팀 직원들은 공사 감독을 위해 주말에도 빈번히 병원에 출근해요. 힘들긴 하지만 공사를 끝내고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마치 새집에 집들이 온 것처럼 이곳저곳 돌아보고 좋다고 말할 때 그동안 한 고생을 한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예요.”

김지현 대리가 담당하는 전기 설비 부분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내원객은 물론 원내 임직원들도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말하지 못해서 상황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서로 충분한 의사 교환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설비를 설치할 때 누가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다. “인하대병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는 시설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 등과 달리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나 승강기 문이 닫히는 속도 등이 조금 느리게 세팅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안전관리자 최보람 기사의 이야기

어떤 공사현장이든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은 필수다. 최보람 안전관리자는 병원 내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

“흔히 병원에서 안전이라 하면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의 안전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저희는 인하대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해요. 환자뿐만 아니라 내원객, 직원,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죠.”

시설팀 직원들은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 모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보람 안전관리자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파트는 없다. “2018년도 하반기에 로봇수술실, 2~3층 에스컬레이터 신설, 지하주차장 계단 설치 등 난이도 높은 공사가 많았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혹시나 사고가 날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다행이었죠. 특히 로봇수술실은 청결구역에서 진행된 공사라 더욱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현재 로봇수술 100사례를 달성할 만큼 다양한 수술이 시행되고, 앞으로도 많은 로봇수술이 실시된다고 하니 더욱 뿌듯합니다.”

인하대병원 시설팀은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진료 지역을 공사할 때는 환자와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를 만족하는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게 최보람 안전관리자의 말이다.

“안전한 인하대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 내원객,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변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습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내 혈압 바로 알기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지만 조기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5월 혈압 측정의 달을 맞아 인천 시민들이 심뇌혈관 건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 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글 송민지(예방관리센터)

5월 혈압 측정의 달에는 '내 혈압 바로 알기'

MMM(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은 국제고혈압학회가 5월을 혈압 측정의 달로 지정해 혈압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계 최대의 공공 혈압 측정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2019 MMM 캠페인은 대한고혈압학회가 주최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공공보건기관들이 공동 주관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 혈압 바로 알기' 라는 명칭으로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고혈

압 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원외, 원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혈압 바로 알기: 백령도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인천 지역의 대표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백령도'다. 교육 전문 간호사들은 백령면사무소에 모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혈압 측정 및 질환 교육을 진행했다. 백령도 어

르신들은 대부분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지만 혈압강하제의 복용 시간과 용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 시 정확한 혈압 약 복용 정보를 전달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백령도 어르신들이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체조를 선보였다.

'20대' 혈압 바로 알기: 인하대학교 축제

이어서 캠페인을 진행한 곳은 인천 지역 20대들이 모여 있는 인하대학교 축제다. 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부스를 운영해 사전 설문 조사, 혈압 측정, 일대일 교육과 함께 콜레스테롤, 혈당 측정을 진행했다. 20대는 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저조한 것이 일반적이거나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센터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혈압 관리를 당부하며 기본 좋게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직장인' 혈압 바로 알기: BMW서비스센터, 송의역

직장인들의 혈압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송의역, 근무시간에 BMW 서비스센터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전 설문 조사, 혈압 측정, 일대일 교육과 함께 콜레스테롤, 혈당 측정 그리고 금연 상담을 진행했다. 직장인들은 잦은 외식과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다수였다. 교육 전문 간호사들은 직장인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BMW 서비스센터와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후 고혈압 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무증상 성인도 지침에 따라 혈압 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평소 싱겁게 먹고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인천 지역 내 심뇌혈관 건강 문화가 정착되도록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④ 성장호르몬 주사

또래보다 지나치게 작은 자녀의 '키'는 부모의 고민거리다. 키 작은 아이를 둔 부모는 성장호르몬 주사제에 관심이 많은데, 성장 치료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글 Ref. KIMS online, 약학정보원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아이가 키가 작은 것 같이 성장호르몬 주사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성장 부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의 성장 부전(저신장증)을 원인에 따라 나뉘보면 뇌하수체 이상으로 성장호르몬이 결핍된 경우, 엄마 자궁 내에서 성장이 지연된 경우(부당 경량아), 또는 다른 동반된 질환(터너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또는 특별한 성장 지연의 원인이 없고 출생 시 체중도 정상이며, 성장호르몬 분비도 정상이지만 신장이 작은 경우(소아 특발성 저신장증)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령 및 성별의 평균 신장과 비교해 특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만 성장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이용한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소아의 경우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정상 성인키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으므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첫 1년 동안 키가 가장 많이 자라며, 그 후에는 성장 속도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 속도가 감소하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운동 능력, 근육량, 골밀도, 지질대사 이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도 용량을 줄여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주사 부위 발진, 통증 및 지방조직위축증, 손발·얼굴의 부종,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두통 및 오심(구역), 관절통, 근육통, 혈당상승, 남아에서의 여성형 유방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편리하고 간편한 동네약국 이용 안내

평소 병원 근처 약국 이용 시 장시간 조제대기 하시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고객님의 집 근처 동네약국 중 본원 약 처방전 조제가능한 약국명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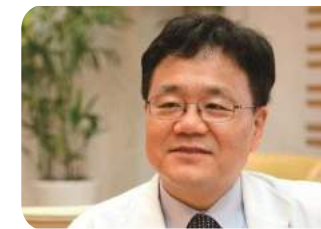
미추홀구 (남구)	약손약국 032-884-1886	연수구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중구	유한온누리약국 032-883-2600
	라성약국 032-831-6065		연수태평약국 032-818-7010		영종태평약국 032-746-1313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이레약국 032-462-1851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동의당약국 032-834-8274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동구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계양구	신도시약국 032-851-7516	부평구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백제약국 032-764-5747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행복한 온누리약국 032-503-9339
	종로약국 032-766-9301		우리팜약국 032-551-7535		옵티마부평성모 032-505-2035
	보명약국 032-762-3347		유원약국 032-551-5650		서구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에서는 협력약국을 모집중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32-890-2107)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2019. 4. 2
기고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영양부족 경험한 저체중 신생아, 비만 가능성 높다 왜?



2019. 4. 10
인터뷰: 심장내과 송준호 교수
언론사: 인천일보
주 제: [스펙트럼 인] '태움' 문화의 용인은 환자 안전을 저해한다



2019. 4. 17
기고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영 교수
언론사: 경기일보
주 제: 조현병 → 강력범죄는 편견... 초기 치료 중요



2019. 4. 18
기고자: 비뇨의학과 강동혁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침묵의 장기 신장암, 정기검진 받아 예방하세요



2019. 4. 24
기고자: 피부과 신정현 교수
언론사: 경향신문
주 제: 건선치료, 생물학적 제제 효과 적... 장기효능, 안전성 살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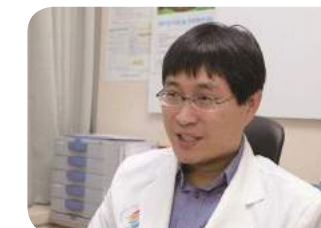
2019. 4. 24
기고자: 심장내과 박상돈 교수
언론사: 쿠키뉴스
주 제: 심장혈관 협착이 부르는 협심증... '생활 속 위험인자부터 경계해야'



2019. 5. 1
기고자: 비뇨의학과 정두용 교수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전립선암



2019. 5. 3
기고자: 정형외과 전문상 교수
언론사: 남구청 소식지 나이스미추
주 제: 습관성 어깨 탈구



2019. 5. 15
인터뷰: 외과 이진욱 교수
언론사: 데일리메디
주 제: 과잉수술 낙인 '갑상선암' → 다시 증가 '위험' 경보



2019. 5. 16
인터뷰: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자가 골수 인공연골 섬유 이용 손상된 연골 살린다



우즈베키스탄 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MOU) 체결하며 한-우즈벡 교류에 앞장
 인하대병원(이하 인하대)은 우즈벡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진정보통신(주), 유신C&C(주), 헤셀(주), Tashkent Medical Academy, Inha University in Tashkent(이하 IUT)와 함께 'ODA 지원 우즈베키스탄 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 포럼은 한-우즈벡 양국 간 보건 의료, ICT 융합 사업, e-Healthcare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다. 인하대병원은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봉사, 환자 유치 사업, 의료시스템 진출 사업 등을 실행하며 보건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와 인하대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한 해외원격진진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선정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의료 기관에 선정됐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 환자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인천 최초로 '움직이는 집중치료실'이라 불리는 INHART팀(신속대응팀)을 구축해 입원환자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산둥성 임기시 인민병원과 의료기술 교류 및 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은 중국 산둥성 임기시 인민병원과 상호협력, 의료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의료기술, 최신 의학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각종 세미나, 의료진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최신 의학 기술에 대한 교류를 진행하고, 필요시 해외 원격 협진의 진행 등 총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해당 병원은 1200만 인구의 3선 도시, 3700병상 규모의 중국 인민병원으로 점차 발전하는 중국과 한국 간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 교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인하대병원은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찰의 트라우마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내 '마음동행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인천 관내 경찰이 전문가의 마음건강증진 도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인하대병원은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 등 예방활동을 비롯해 경찰관의 상담, 검사, 치료를 진행한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인천시와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경찰이다. 마음동행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인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소중히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 평화유지군 동명부대와 현지 아동 의료지원사업 실시
 인하대병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국방부, 레바논 주한대사관 등과 협력해 UN 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지역 내 장애아동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일간 의료진(단장 송준호 교수)을 레바논 티르 지역에 파견해 진료와 수술 환자를 선정한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치른 전쟁과 내전 이후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의료사업이 진행되는 티르 지역은 한국 동명부대가 파병되어 평화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동명부대 관할 지역에서 선정된 청력 장애 아동을 한국으로 이송해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 경과와 환자 진료 과정은 동명부대와 주 레바논 대사관이 지원하고, 이송에 필요한 제반 조치는 대한항공에서 지원한다.



제1회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로 선정된 인하대병원이 제 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및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서울대어린이병원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 채중희 센터장),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및 치료의 현재와 미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동규 교수), 희귀유전질환에 대한 정형외과적 접근(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권대규 교수),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분자유전학적 접근(인하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우리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인천서부경찰서와 함께 인천 서구 세어도 방문해 의료지원 활동 실시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인천서부경찰서와 함께 인천 서구의 유일한 도서지역 세어도를 찾아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명옥 단장(재활의학과)을 필두로 구성된 4명의 봉사단은 근골격계 통증 완화 치료를 비롯해 세어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인천서부경찰서의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김명옥 단장은 "섬 주민들은 의료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인천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19 백령도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실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하고 옹진군 보건소가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사업이 백령도에서 진행되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백령도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교육·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동근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은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해 주민들의 뇌졸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예방관리센터 교육 전문 간호사들은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체조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부스에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일대일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지원센터, 2년 연속 우수 센터 선정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전국 지역권역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포상·격려하기 위해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센터는 전국 18개 지역권역지원센터 가운데 2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김규성 센터장은 "앞으로도 인천권역지원센터는 여성, 대학생, 위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캠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지원센터는 중증 및 고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집단 건강교실' 운영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해 질한 교육 프로그램 '소집단 건강교실'을 운영 중이다. 소집단 건강교실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뇌 재활로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 및 내원객 5명 이내를 대상으로 전문의가 강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심근경색, 뇌졸중, 재활의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심뇌혈관 건강상태를 잘 인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은 뇌혈관센터 월 2회 둘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반, 심혈관센터 월 2회 둘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심뇌재활센터 월 3회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과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되며 30분 동안 인하대병원 신관 3층 예방관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진료 안내 (2019년 6월 15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치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권혜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박흥재	일본내과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신경외과 NSNN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사,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소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외과 (NSCB)	윤혜원	뇌졸중, 치매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소상, 두부외상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과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정미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감작성척추염, 통풍	
	이승윤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김한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2360	박원희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성도환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산부인과 ☎2270, 2117	정두용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 질환	
	김동호	종양학, 복강경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한경희	종양학, 복강경	
성형외과 ☎3870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성형외과 ☎3870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지역학
		아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양아람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장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외사기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청소년과 ☎2260	남수경	신생아, 미숙아, 발달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소화기내과 ☎2224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해외연수 2018.8.15 ~ 2019.8.14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신경과 ☎3860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경과 ☎3860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윤혜원	뇌졸중, 치매
	신경과 ☎3860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사,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소상, 두부외상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신경외과 ☎2370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김문재	신장질환,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지중현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문재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신장내과 ☎2229	박근명	신장이식	
	정신건강의학과 ☎1167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재활의학과 ☎2480-1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해외연수 2018.08.01 ~ 2019.7.31	
	권성중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심질환, 가외사기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안과 ☎2400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정지연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김요섭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안과레이저	EVAL	레이저클리닉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전용선	중재적 영상의학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외과 ☎2250	신석환	연구년 2019.6.1 ~ 2019.8.31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허민희	유방, 내분비외과	
	최유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안종혁	유방, 내분비외과	
	최정식	간담도외과, 일반외과	
	김재환	유방, 갑상선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외과 GSBT	허민희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안종혁			유방, 내분비외과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김원희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이비인후과 ☎2420-1	성형외과(PSBT) 정신건강의학과(PT)	장태영	수면무호흡,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종이염
		김영효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석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김현지	어지럼, 난청, 종이염, 이명, 보청기, 편도
임상약리학과 ☎1167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헌	임상약리/약동분석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재활의학과 ☎2480-1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이정심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정신건강의학과 ☎3880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희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정형외과 ☎2380	강준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정형외과 ☎2380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전유상	어깨관절 (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박준성	무릎, 어깨	
직업환경의학과 ☎2861	임종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의관리	
	김환철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척추센터 (SCC) ☎2619	신경외과 (NSSC) 재활의학과(RM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종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종양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치과 ☎2470	김일규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통증센터 ☎3921	김병건	통증치료	
	김나은	통증치료	
	백지선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윤용한	폐종양
피부과 ☎223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 반증, 기타자기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초
		변지연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핵의학과 ☎3160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혈관외과 ☎2166	외과(GSVC) 흉부외과(CSVC)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혈액종양내과 ☎2199	이민희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호흡기내과 ☎2216, 2217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김민정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박미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흉부외과 ☎2280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희귀유전 질환센터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양이름	뮤코다당증, 누낭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안젤만증후군, 티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신경과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재활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진단검사학과	문연숙	세포유전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염증성 장질환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신석환	위암, 위기질성종양	
혈액종양내과	하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대장암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혈액종양내과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대장절제술, 치질 등 대장항문질환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대장암, 직장암, 폐암, 흉선종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간암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해외연수 2018.8.15 ~ 2019.8.14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 뇌척추종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췌장도암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폐암	이홍렬	폐암, 폐결핵,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핵,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핵,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핵, 폐암 조기검진	
	홍부외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도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폐전이암, 흉선종, 사이버나이프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암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절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갑상선암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이진우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이비인후과	최정석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해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학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유방암	외과	허민희 유방암, 유방질환 이진우 유방양성질환, 유방내분비,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부인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한경희	자궁 및 난소종양치료, 부인암 생존자 상담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임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비뇨기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비뇨의학과	이택 전립선암, 신장암, 복강경수술 강동혁 신장암, 신우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복강경수술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두경부암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최정석	해외연수 2018.9.1 ~ 2019.8.31
피부암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위암, 식도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두암, 폐암, 혈액암
뇌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영욱 암재활 - 림프부종
근골격종양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신경외과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혈액종양내과	박현선	사이버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암, 두경부암, 두개 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정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암,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강준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혈액종양내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병리과	주영재 연부조직 병리

■ 암통합정보교육 프로그램 사전신청 및 문의 (032) 890-1071, 1072

- 강의형 교육: 암 질환 및 치료 중심 강의, 주 1회
대상자 - 암 환자 및 가족, 내원객
- 참여형 교육: 노래치료, 웃음치료, 캘리그래피(손글씨), 미술치료
대상자 - 현재 치료중인 암 환자, 사전 신청 필수
- '대장암의 날' 공개강좌 - 일시: 9월 25일, 장소: 강당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인천·경기지역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가 직접 경험한 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전반적 평가 분야 전국 2위, 전 분야 전국 상급종합병원 Top 3 안에 들었습니다.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1 인하대병원 93.23	1 인하대병원 85.83	1 인하대병원 87.06
2 순천향대 부천병원 92.02	2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4.46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4.83
3 고려대 안산병원 90.40	3 순천향대 부천병원 84.18	3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76
4 분당서울대병원 89.96	4 아주대병원 82.95	4 아주대병원 82.31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9.11	5 고려대 안산병원 80.99	5 고려대 안산병원 81.23
6 아주대병원 88.35	6 분당서울대병원 79.84	6 분당서울대병원 80.95
7 길병원 85.76	7 길병원 76.83	7 길병원 80.43
8 한림대 성심병원 82.85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76.19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76.39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평가
1 인하대병원 90.58	1 인하대병원 86.97	1 인하대병원 89.07
2 분당서울대병원 89.29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2.97	2 순천향대 부천병원 87.75
3 순천향대 부천병원 88.30	3 아주대병원 81.02	3 분당서울대병원 86.73
4 아주대병원 85.48	4 고려대 안산병원 81.00	4 아주대병원 84.34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90	5 분당서울대병원 80.49	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83.70
6 고려대 안산병원 82.31	6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79.92	6 길병원 80.34
7 길병원 81.71	7 길병원 78.41	7 고려대 안산병원 80.06
8 한림대 성심병원 77.56	8 한림대 성심병원 76.48	8 한림대 성심병원 75.85

(표)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가 결과표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